

매카시즘 비판과 직업으로서의 지식인 옹호:

호프스테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의 저술 맥락과 의도

홍철기 (서강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반지성주의가 아닌 반-반지성주의(anti-anti-intellectualism), 즉 반지성주의 비판론에 대한 것이다. 반지성주의가 아닌 반-반지성주의를 검토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반지성주의가 포퓰리즘과 유사하게 본질적으로 반대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적대적이고 경멸적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의 발화자는 개념에 대한 판정자 또한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모호한 개념이 도덕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오남용될 위험이 크다. 특히 이 연구는 현대 한국의 반지성주의 논의가 대체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 역사학자 호프스테터(Richard Hofstadter, 1916-1970)의 『미국의 반지성주의』(1963)를 살펴본다.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근 한국 반지성주의 비판론에 공통된 두 가지 가정을 비판할 것이다. 첫 번째 가정은 반지성주의가 미국 정치와 역사에 특수한 것이 아닌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기존 반지성주의 비판이 우파 반지성주의만을 겨냥한 역사적·이념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론은 이미 당대 미국 역사학자들에 의해 시대착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비판을 보편화할 경우에 ‘이중의 탈맥락화’ 혹은 ‘이중의 시대착오’의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반지성주의 개념 정의와 사용에 연구자나 발화자 자신의 자의적 개입 여지가 증폭된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호프스테터 자신은 중도적 냉전 자유주의자였다. 그의 반지성주의 개념은 중도적 입장에서의 좌파와 우파 모두의 극단주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그의 반지성주의 비판이 우파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 이유는 전후 1950-1960년대 미국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반지성주의 비판이 궁극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도덕적·이론적 정당성이 역사적으로는 냉전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 서론: 적대적 개념으로서의 반지성주의

이 연구는 반지성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반지성주의(anti-anti-intellectualism)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굳이 반-반지성주의라는 어색할 수도 있는 용어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반지성주의에 대한 반대 측에 의해서만 사용된다. 누구도 자신의 입장을 반지성주의라고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반지성주의자라고 묘사하지 않는다. 오직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반대자만이 반지성주의자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 개념에 대해 ‘자기-묘사(self-description)’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은 마찬가지로 반지성주의 개념에 적용될 수 있다(Canovan 1981).¹⁾ 게다가 무엇이 반지성주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반지성

1) 포퓰리즘 개념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지성주의 개념만큼 자기-묘사성의 결여가 전면적이지 않다고 하겠다

주의 반대자들 사이에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대방을 반지성주의자로 지목하는 주체가 반지성주의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다른 반대나 비판과는 구별되는 어떤 적극적인 가치를 표명하는지 분명치 않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을 곧바로 주지주의자 혹은 지성주의자(intellectualist)라고 불러야할지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반지성주의 비판자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자와 같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주로 규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비판이나 저항과 같이 지성의 역할 중 특수한 일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반지성주의 비판의 논의들로부터 비판자들 사이에 합의 가능한 입장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한데 묶어서 주지주의 내지는 지성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명명행위인지 알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반지성주의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 외에 반지성주의의 반대자들(‘반-반지성주의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가능할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그리 낮은 것이 아니다. 바로 반-포퓰리즘 담론이 처해있는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포퓰리즘은 반지성주의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반지성주의의 언어적 특징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지성주의의 경우와 비교하면 분명히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포퓰리즘의 반대자들만이 대체로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이 명칭을 부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의 목록을 다양하게 작성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단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을 넘어서 포퓰리즘 연구의 지배적인 흐름은 바로 이러한 개념정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음을 인정(acknowledgement of acknowledgement)’하는 ‘메타-재귀성’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놀림을 받기도 한다(Moffitt & Tormey 2014). 포퓰리즘의 반대자들이 포퓰리즘으로부터 무엇을 지켜내고 싶어하는지도 포퓰리즘의 특징들을 나열한 목록만큼 길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적인 것인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포퓰리즘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포퓰리스트들은 가짜 민주주의자이고, 자신들은 진짜 민주주의자라는 것이리라. 하지만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논쟁적 개념이라면 가짜 민주주의자와 진짜 민주주의자의 구별은 논쟁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치와 언론에서의 포퓰리즘 및 반지성주의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러한 반-포퓰리즘과 반-반지성주의의 적대주의적 경향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 말들을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반지성주의’보다는 ‘지난날의 반지성주의’ 혹은 ‘지난날의 반-반지성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우선 ‘오늘날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거의 언제나 ‘지난날의 반지성주의’ 비판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난날의 반지성주의’ 비판을 다루는 방식은 사상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쉽게 수궁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날의 반지성주의’ 비판이란 당연히 호프스테터(Richard Hofstadter, 1916-1970)의 『미국의 반지성주의』(이하 『반지성주의』)를 의미한다(Hofstadter 1963a; 2017). 텍스트 자체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든, 혹은 이 텍스트의 저술 배경과 역사적·언어적

다. 호프스테터(Richard Hofstadter), 실스(Edward Shils) 등에 의해 1950년대 미국에서 (코젤렉의 표현을 빌면) ‘대립개념(Gegenbegriff)’ 혹은 일종의 멸칭으로서의 포퓰리즘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최소한 미국 역사학계는 포퓰리즘을 미국 정치사에서의 긍정적인 (혹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개혁운동의 ‘전통’ 혹은 ‘유산’으로 평가해오고 있다(Hicks 1932; Woodward 1938; 1951; 1959; Pollack 1962a; 1962b; 1965; Nugent 1963; Goodwyn 1976; Postel 2007).

맥락에 관해서든, 국내에서의 반지성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의 규모에 비해서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비판, 그리고 1955년 작 『개혁의 시대』(Hofstadter 1955a)에 이은 호프스테터 자신의 두 번째 폴리처상 수상작이자 1964년 폴리처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 『반지성주의』에 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오늘날의 반지성주의’ 논의에 대한 간접적인 개입의 방식으로 ‘지난날의 반지성주의’ 혹은 ‘지난날의 반-반지성주의’를 다루면서 이를 ‘오늘날의 반-반지성주의’의 비교 대상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사 전공자들의 유의미한 학문적 검토(예컨대 박진빈 2017) 이외에는 대체로 전언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는 『반지성주의』를 상세히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난날과 오늘날의 반지성주의 논의 전반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거의 일반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는 논의의 근원을 반드시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에서 찾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이제는 일반명사가 된 개념의 지성사적 연원에 대한 무관심이 특히 반지성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과연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반지성주의에 관한 현대 한국의 논의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반지성주의라는 말로 지칭할 수 있는 현상이 만연하다는 인식과 이 현상들을 지칭하기 위한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불만족일 것이다. 이러한 반지성주의 개념 정의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소환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이다. 대체로 오늘날의 반지성주의에 관한 논의는 『반지성주의』가 반지성주의를 ‘지식인에 대한 증오, 혐오, 반감, 혹은 경멸’ 등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인용되거나 언급되는 구절은 “내가 ‘반지성’이라고 일컫는 태도나 사고에 공통되는 감정”이란 “정신적 삶과 그것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와 의심이며,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언제나 알아보려는 경향”이라고 말한 부분이다(Hofstadter 2017, 25; 예컨대 한상원 2018, 25 n 3; 강준만 2019, 32).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반-반지성주의 논의는 호프스테터의 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반지성주의』에 대한 서평문을 제외하면 호프스테터의 논의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드문 시도는 강준만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강준만은 호프스테터가 “반지성주의의 엄격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반지성주의 적용 범위를 처음에 내세운 ‘지식인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넘어서 기존 체제에 대한 순응주의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반지성주의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본다. 그는 “‘우파 반지성주의’에만 몰두”하였는데, 이는 역사적 한계의 산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반지성주의 개념을 시공을 초월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파 비판의] 이념성의 문제는 건어내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강준만 2019, 32-33). 강준만의 이러한 평가는 현대 한국의 반-반지성주의의 문제의식을 요약하는 데에 좋은 단서가 된다. 반지성주의 개념정의 ‘혼란’, 그리고 우파 비판의 ‘이념성’이다. 다시 말해서, 반지성주의는 단순히 정의될 수 없고, 혹은 없었고, 원래는 우파 정치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용어였다는 것이다. 개념정의의 어려움은 강준만의 경우처럼 ‘혼란’이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고 윤태진의 경우처럼 “여러 얼굴”을 가진 현상의 다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인정되기도 한다(윤태진 2017, 239).

다른 한편으로 현대 한국의 반지성주의 논의는 반지성주의가 반드시 우파나 극우의 반지성주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베’와 같은 극우 사이트’에만 반지성주의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위와 정권교체 이후 현 상황 속에서 반지성주의는 자유주의적 진보 정치의 지지자들에게서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한상원의 서술이 요약적으로 보여주듯이 반지성주의는 정파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한상원 2018, 25).

박진빈은 『반지성주의』에 관한 서평에서 호프스테터의 정치적·이념적 지향이라고 인식되는 “미국 리버럴”에 대해 “과연 얼마나 개혁적 좌파라고 볼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현대 한국의 반지성주의 논의의 이념적 좌표를 어느 정도는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박진빈 2017, 438). 이러한 와중에 반지성주의라는 말의 적극적 사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유보의 입장도 분명하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유보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바로 반지성주의 비판이 오만하고 보수적인 엘리트주의로 비춰지거나 실제로 그렇게 변질될 위험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대표적으로 윤태진 2017; 천정환, 2017; 한상원 2018).

이 연구는 국내 연구와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의 ‘초월’ 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면서 호프스테터의 논의와 그 맥락을 재검토해볼 것이다. 두 가지의 ‘초월’ 가능성이란 ‘반지성주의’ 개념정의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초월 가능성, 즉 역사적 맥락을 제거한 순수한 개념정의의 가능성 그리고 반지성주의 개념에 내장된 것으로 인식되는 정파적 이념으로부터 초월 가능성, 즉 이념으로부터 순수한 개념정의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반지성주의가 그것의 반대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이러한 ‘순수성’이 가져다주는 이점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 제기는 단순히 초월성과 순수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제시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이는 그러한 초월성과 순수성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필연적으로 귀환하게 되는 ‘정치성’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과연 순수한 지성주의 정치, 혹은 순수한 지성주의 비정치란 과연 어떤 종류의 정치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러한 초월성과 순수성에 대한 추구가 정말로 호프스테터와 그의 시대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는가?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개념의 학계에서의 용법이 학계 외부의 용법에 대해 더 이상 분리된 순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포퓰리즘 개념의 경우를 통해 지적하는 스타브라카키스(Yannis Stavrakakis)의 연구, 그리고 포퓰리즘 개념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학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역사적·정치적 의미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예거(Anton Jäger)의 연구가 제공하는 통찰을 반지성주의 개념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Stavrakakis 2017; Jäger 2017). 이 연구는 예컨대 “반지성주의를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적용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이자 특정 언행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미시적 개념으로 쓸 것을 제안”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반지성주의 개념의 명백한 정치성과 역사성에 대한 자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강준만 2019, 49).

II.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개념: 기원, 맥락, 논쟁

1. 『반지성주의』 이전의 논의와 비판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논의의 출발점은 시기적으로 『반지성주의』가 출간된 시점보다 10년 정도 앞선다. 그는 1950년대 초중반에 이미 미국 고등교육 및 학문의 자유의 역사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집필하여 발표한 바 있다(Hofstadter & Hardy 1952; Hofstadter & Metzger 1955). 또한 이 시기에 발표된 1953년의 강연문 “미국의 민주주의와 반지성주의”는 『반지성주의』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호프스테터는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 특히 미국 특유의 포퓰리즘적 민주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이 시기 반지성주의 개념 및 관련 논의는 당대의 포퓰리즘 개념 및 관련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지성주의 개념은 따라서 독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 개념의 인접 개념으로 봐야한다.

멸칭으로서의 포퓰리즘 개념의 등장과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논의가 시작되는 데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전후 미국에서의 기존 뉴딜 민주당과 온건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특히 이 반작용의 주된 흐름은 우파로부터 기인하였는데,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의 당선과 공화당의 집권, 그리고 1950년대 초중반의 매카시즘(McCarthyism)의 격화가 이 계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이때 전문가와 지식인은 뉴딜 자유주의의 대변자로서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호프스테터의 강연문 “미국의 민주주의와 반지성주의”가 발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그는 이 강연문에서 그는 베버(Max Weber)의 직업정치가론의 ‘정치에 헌신하는 삶’과 ‘정치를 생계로 삼는 삶’의 구별을 빌려와서 “사고(ideas)에 헌신하는 삶”과 “사고를 생계로 삼는 삶”을 구별하면서 전자에 대한 반대와 불신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한다(Hofstadter 1953, 282). 그리고 전자에 대한 반대와 불신의 미국적 전통의 핵심에는 ‘실용성’에 대한 우선주의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특히 미국에서의 지식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은 지식인, 즉 ‘사고에 헌신하는 삶’의 두 측면인 순수한 지적 ‘장난기(playfulness)’와 진리에 대한 헌신에 요구되는 ‘경건함(piety)’ 모두에 대한 가치 절하의 경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Hofstadter 1953, 285).

호프스테터가 보기에 미국에서의 반지성주의의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헌주의, 토의에 의한 정부, 정치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적 민주주의(populistic democracy)”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진보주의적이지도 않고 보수주의적이지도 않으며” 오직 “왜곡된 방식으로 평등주의적”이라고 본다.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극좌와 극우”가 만난다고 보면서, 그 본질은 바로 교육받은 전문적 식견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의견 사이의 차별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영역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이 대중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역되며, 공교육 체계의 중등교육기관 졸업자라면 누구나 자립대학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등으로 표현된다(Hofstadter 1953, 286). 그는 미국의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가 과거에 교육 체계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위한 개혁을 추동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고등교육에서의 자유를 제약하고 지적 목표에 대한 헌신을 비하”하려는 세력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본다(Hofstadter 1953, 288).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이미 그 출발점에서 대립개념으로서의 ‘포퓰리즘’과 ‘반지성주의’는 특별히 우파를 겨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탈-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호프스테터의 논의가 당연히 지금의 관점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엘리트주의와 보수주의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과 반지성주의의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와 조건(‘고등교육’이 처한 상황)과 연관시켜서 사고하고 다루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

이 시기 매카시즘을 포퓰리즘과 연관시켜서 비판적으로 논의했던 학자와 저술가들이 주목을 하고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주로 유럽 전간기에 기원이 있는 사회과학과 사회학의 유산이다. 이들이 주로 기댄 것은 마르크스(Karl Marx)의 대안으로서의 베버와 만하임(Karl Mannheim)의 논의였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권위주의적 인격성』이었다

2) 호프스테터는 이 강연문에서 고등교육과 지성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대중화되기 시작한 고등교육 내부에도 지성주의의 반대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봤기 때문이다(Hofstadter 1953, 281). 즉 지성주의는 고등교육 내부에서도 소수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화된 대학에서의 비판적 지식인의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반지성주의 논자들의 논의와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현대의 대학에서의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정당한) 비판이 ‘비판적’ 지식인의 엘리트주의 혹은 귀족주의를 위한 핑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dorno et al 1950; Brown 2006, 72-95). 물론 아도르노의 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특히 아도르노의 논의가 오직 우파의 파시즘 및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호프스테터를 비롯한 ‘포퓰리즘으로서의 매카시즘’ 비판자들의 주된 불만족이었다. 대표적으로 실스는 아도르노와 그의 동료들이 “우파”의 권위주의만 대상으로 삼고 “좌파”의 권위주의는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hils 1954).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은 매카시즘의 지지자들이 구대륙의 좌-우 구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중산층의 중도적 극단주의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Lipset 1955). 마치 좌파와 우파 모두의 전체주의를 문제 삼는 반-전체주의 담론을 연상시키는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 저자들이 대체로 전간기에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다가 스탈린주의의 부상과 함께 중도로 전향하여 뉴딜 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된 지적·정치적 편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포퓰리즘은 구대륙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 구별되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지성주의 개념을 포퓰리즘 개념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개념이 애초에 우파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는 포퓰리즘과 매카시즘 분석의 중요한 개념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였다. ‘포퓰리즘으로서의 매카시즘’ 비판의 중요한 이론적·학술적 계기가 된 1954년의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세미나를 주도한 벨(Daniel Bell)은 매카시즘의 등장이 기존 사회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혁신의 강제했다고 보았다(Bell 1955a; 1955b). 호프스테터도 포함된 이 세미나의 참석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아도르노가 권위주의적 인격성을 분석할 때 제시한 심리학적 분석 도구인 “지위 불안(status anxiety)” 개념이었다. 이 개념으로부터 참석자들은 “이익 정치(interest politics)”나 “계급 정치(class politics)”와 구별되고 대립되는 “지위 정치(status politics)”라는 틀에서 매카시즘과 당대의 극우 정치를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하였다(Hofstadter 1955b; Lipset 1955). 이들이 보기에 매카시즘을 비롯한 급진 우파의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의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 특히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불만족,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엘리트, 즉 뉴딜 자유주의의 주도자들과 수혜자들에 대한 ‘원한’이었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특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음모론’적 사고는 바로 준-통치계급으로 성장한 지식인 엘리트들에 대한 이러한 원한과 불신에서 기인한다.³⁾ 이에 더하여 호프스테터는 특히 아도르노의 분석으로부터 ‘지위 정치’ 이외에 ‘의사-보수주의자(pseudo-conservative)’라는 개념을 빌려온다(Hofstadter 1955b). 이는 매카시즘을 비롯한 전후 미국 우파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치가 아니며, 오히려 뉴딜이라는 새로운 미국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중도 자유주의 지식인이야말로 정파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일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비판적 개념이다.

호프스테터의 매카시즘 비판은 그의 첫 번째 폴리처상 역사 부문 수상작 『개혁의 시대』에서 정점에 이른다(Hofstadter 1955a). 이 책에서 그는 과거의 미국의 토착적인 좌파 급진주의 정치 운동인 포퓰리즘이 어떻게 해서 뉴딜 자유주의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이와 대립하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그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미국의 개혁주의 운동의 역사를 뉴딜 이전과 이후로 구별하고 양자가 그 원칙에 있어서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뉴딜 이전의 개혁운동이 농민 급진주의와 그에 공감하는 도시 자유주의의 연합이었다면, 뉴딜 이후에 수립된 것은 유럽 문명이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근대성과 합리성의 완성

3) 실스는 이러한 포퓰리즘적 원한과 불신에서 비롯되는 음모론적 사고, 특히 지식 엘리트가 일반 시민을 배반하고 적을 도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매카시즘의 사례에서처럼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의 필수적인 국가기밀에 대한 완전한 공개요구와 무분별한 폭로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Shils 1956).

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뉴딜 이전의 좌파 급진주의의 정서나 원칙은 사고(지성)와 조직화에 대한 반감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뉴딜의 근대화, 합리화, 전문화 경향과는 화해할 수 없고, 이러한 반감이 결국 전후의 뉴딜에 대한 우파의 공격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포퓰리즘을 역사적 운동의 명칭으로서의 대문자 포퓰리즘(Populism)에서 토착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과거지향적인 급진주의 정치 운동 일반을 의미하는 소문자 포퓰리즘(populism)으로 재정의하려는 중요한 시도를 보여준다(Hofstadter 1955a, 5; Woodward 1959, 69; 2013, 196-199). 동시에 그는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이 개혁주의적인 측면 이외에 토착주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등의 반동주의적 측면을 같이 갖고 있다고 재평가한다. 포퓰리즘을 소문자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포퓰리즘 운동을 재평가함으로써 역사적 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과는 역사학적으로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매카시즘을 역사적 운동 포퓰리즘과 함께 모두 (여전히 미국 정치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소문자 포퓰리즘의 사례들로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의 핵심에서 그는 ‘기업가적 급진주의’를 발견한다(Hofstadter 1955a, 58; 1969). 기업가는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근대적 문명 세계 밖의 인물이며 동시에 상업적 성공과 지위 상승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그러한 목표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제도와 권위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와 증오가 급진주의적 기업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가적 미국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형을 이상화하는 경제적 개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바로 미국의 건국기의 상업 공화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프스테터의 소문자 포퓰리즘 개념 규정은 단지 대문자 포퓰리즘을 역사적으로 “맥락으로부터 떼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까지 미국사의 긍정적 유산이자 전통으로 평가받았던 포퓰리즘의 이름을 “비난”과 “경멸조”의 명칭으로 부당하게 뒤바꿔 놓았다고 비판받았다(Pollack 1960, 480; Woodward 1959, 56).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호프스테터는 이전에 자신의 포퓰리즘이라고 불렀던 우파 급진주의를 정치의 “편집증적 스타일(paranoid styl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르면서 이 용어가 “경멸적”이며, 바로 그렇게 “의도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Hofstadter 1965, 5). 또한 대문자 포퓰리즘 운동이 반-유럽적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반-근대주의라는 호프스테터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후의 역사학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인 반론제기와 반증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대표적으로 Pollack 1962b; Nugent 1963; Postel 2007). 따라서 반지성주의 개념의 모체이자 지성주의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포퓰리즘 개념이 최소한 20세기 미국사와 미국사학에 있어서는 결코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용어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야한다.

2. 『반지성주의』의 반지성주의 개념과 그에 대한 비판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에서 반지성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바로 지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 그리고 종교로부터 세속화된, 반근대적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반지성주의』는 여전히 포퓰리즘의 본질을 ‘기업가적 급진주의’에서 찾은 『개혁의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우선 반지성주의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반지성주의자로 자각하고 있는 반지성주의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지성주의의 대변인들은 거의 언제나 어떤 사상에 헌신하며, 살아있는 동시대인들 가운데 눈에 띄는 지식인들을 증오하는 것만큼이나 오래전에 죽은 일부 지식인들을 추종하기도 한다.

(...) 사실 반지성주의는 대개 모종의 정당화될 수 있는 의도에서 빚어진 우발적 결과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상과 문화를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기업가와 노동조합 지도자는 지식인 계급에 대해 놀라울 만치 비슷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더구나 혁신주의 교육 자체에도 강렬한 반지성주의적 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런 교육을 가장 단호하게 공격하는 우파 자경단원들도 나름의 반지성주의를 드러낸다. (Hofstadter 2017, 45-46)

그는 미국의 포퓰리즘적 문화와 사회에 편재한 반지성주의적 흐름을 각각 미국의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추적한다.

우선 종교에 있어서의 반지성주의의 출발점을 건국 이후 미합중국 초기의 교파주의(denominationalism)에서 찾는다.

미국 교파주의의 본질은 교회가 자발적인 조직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신도들은 어떤 교회에도 입교를 강요당하지 않았고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전통적인 신앙도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평신도들은 여러 교파 중 어디에 충성을 바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 교파는 종종 자기를 바깥놓을 만한 종교적 체험을 한 뒤에 자신의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발적인 단체였다. (...) 미국의 정치적 신조에서는 유럽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지난날의 부패를 대표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 사람들의 목표는 원시 그리스도교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거기에서는 성서만이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Hofstadter 2017, 125-126)

그리고 이러한 자발성 중심의 평등주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와 같은 실용적 단순성,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설득하여 많은 신도를 모으는가 하는 일종의 ‘다수결주의’와 결합되게 된다 (Hofstadter 2017, 127-128). 이와 같은 교파주의적 평등주의는 학식 있는 사제가 아닌 선동가 유형의 전도사가 주도권을 갖도록 만들어주었다. 물론 이러한 초기 역사가 곧바로 당대의 반지성주의 및 우파 급진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20세기 초반 진화론 반대, KKK 및 금주법 옹호 등의 시도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은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제 종교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힘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관용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열성적이고 엄격한 종교적 신앙과 정치적·인종적 증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실제로 냉전하의 여러 조건과 세계 공산주의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육성된 호전적인 정신 덕분에 근본주의자들의 정신이 새롭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현대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근본주의 자체도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세속화 과정에서 일종의 유사정치적 심성이 그 대체물로서 생겨난 것이다. (...) 실험적이고 ‘세련된’ 현대 사회에서 근본주의자의 정신은 자꾸 구석으로 밀려나고 놀림거리로 전락한다. (...) 그러나 정치는 다르다. 현대의 세속화된 근본주의는 정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힘과 응징하는 능력을 발견하고 있다. 즉 2차대전 이후의 정치 풍토 속에서 근본주의적 심성은 ‘완벽주의자’와 강력하게 결속되었던 것이다. 근본주의 교육에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소득세로 타격을 입고, 뉴딜이 추진한 사회 개혁에 적의를 품는 부유층, 그리고 고립주의자 집단과 호전적인 민족주의자들, ‘신 없는 공산주의’ 문제를 놓고 과거의 박해자들과 비로소 손을 잡으려 하는 가톨릭 근본주의자들, 흑백 분리 철폐를 둘러싼 싸움으로 새롭게 활기를 얻은 남부의 반동 세력 등이 그들이다. (Hofstadter 2017, 192-193)

미국 기독교가 교파주의 성공 이전의 예외적인 초기사를 제외하면 평등주의와 상업주의, 그리고 근본주의를 결합시키고 이를 정치 영역에 침투시킴으로써 반지성주의의 주요한 온상이었다면, 미국 정치는 그와는 달리 지성주의와의 협력과 반목이 교대로 나타난 역사를 가진 영역처럼 보인다. 호프스테터는 건국 초기가 정치와 지성의 행복한 조화의 시대였다고 묘사한다.

국가 지도자는 곧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 엘리트 집단 안에서 지식인들은 자유롭게 행동했고 그들의 발언도 누구나 경청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당시만 해도 전문화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지식인 별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배 계급 젠트맨으로서의 지식인은 법조계, 전문직, 재계, 정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로 행세했다. (Hofstadter 2017, 205-206)

하지만 건국 직후 공화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젠트맨 계급이 정치로부터 후퇴하여 비정치적인 지적 영역에 안주하게 되면서 정치와 지성의 조화의 시대는 끝을 맞게 된다. 특히 정치에서의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경향은 바로 잭슨주의였다. 하지만 “잭슨 지지자들은 평등주의 정서와 반지성주의 정서에 강하게 호소했지만, 어느 쪽도 독점하지는 못했다. 잭슨 지지자들만 평등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다-국가 자체가 평등주의적이었다. 경쟁에 입각한 양당 체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 상대 당보다 앞서더라도 그 호소는 금세 모방당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Hofstadter 2017, 227). 잭슨 시대 이후의 평등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전적인 승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특히 혁신주의(Progressive)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와 지성의 대립은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화 덕분에 해소되게 된다.

거대 권력을 주요 기업가나 정치 거물들의 수중에서 빼앗아 거기에 인간성을 불어넣고 도덕을 가미하려면 정치를 정화하고 경제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당연히 정부의 기능은 더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질 것이었다. 민주주의 자체를 위해서도, 전문가들을 의심한 잭슨주의적 태도는 불식되어야 했다. 민주주의와 교육 받은 사람 간의 긴장은 해소되어가는 듯했다. 언제나 전문가의 가치를 강조해온 사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민주주의도 역시 전문가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Hofstadter 2017, 276)

이러한 평등주의와 지성주의의 협력은 바로 뉴딜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하게 되며, 그 이후로 뉴딜의 비판자와 옹호자가 곧 지성주의의 비판자와 옹호자가 되어버렸다.

경제 영역에서의 반지성주의는 기업가와 노동운동가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순수 학문 교육에 대해 실용적인 직업 교육에 더 가치를 두는 것과 관련된다. 경제 영역에서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호프스테터의 분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자조(self-help), 자수성가(self-made)의 대중적 성공 신화가 기독교적인 상업주의와 결합되는 양상에 관한 것이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돌보는 것의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업이 종교적 훈련의 수단이고 하느님을 섬기는 다양한 수단의 하나였던 반면, 이제는 종교적 훈련이 사업의 수단이고 하느님을 세속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방편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업에 성공하면 그것을 구원의 징표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현세에서 의지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 즉 세속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성공과 동시에 얻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종교는 활용해야 하는 것이 된 셈이다. (Hofstadter 2017, 366)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서의 반지성주의는 특히 실용교육에 대한 강조, 그리고 지적 평등주의, 혹은 지적 격차에 대한 부정의 경향의 강화로 지적된다. 또한 호프스테터는 교육의 목표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교육에 있는 것으로 주장한 듀이(John Dewey)를 곧바로 반지성주의자라고 지목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후의 미국 현대 교육에서의 반지성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철학자라고 비판한다(Hofstadter 2017, 488). 물론 듀이의 철학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혁신주의 교육론은 (포퓰리즘-진보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육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에 분명하게 공헌한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 영역에서의 반지성주의 강화를 위해 활용(혹은 오용)된 것이 또한 듀이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호프스테터가 다양한 영역을 관통하는 반지성주의 개념의 정의하여 제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반지성주의』의 초고를 읽어본 동료 역사학자 우드워드(C. Vann Woodward)에 비판을 받았다. 우드워드는 호프스테터가 미국 기독교에서 유래하는 반지성주의적 근본주의자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100퍼센트 심적 자세”에 대해서 말할 때, “근본주의자”와 “극우”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혹은 양자를 모두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단지 “반지성적”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와 극우의 범주를 넘어서 “천년 왕국설, 종말론, 청교도, 냉소주의, 민족주의, 유사-파시즘, 반-외국인, 반-유대인, 반-국가주의, 반-공산주의, 반-자유주의”의 특징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드워드가 보기에 호프스테터의 개념 규정은 당대의 근본주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을 혐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의 근본주의자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호프스테터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거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착오”의 오류에 빠져있는데, 이는 “아도르노(Adorno), 스타우퍼(Stouffer), 하틀리(Hartley)” 등의 사회이론가들에 의존한다고 해서 이 오류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Woodward 2013, 226-227).⁴⁾ 이와 같은 우드워드의 비판은 호프스테터의 저작에 대한 당대 역사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호프스테터는 (흔히 포퓰리즘 개념에 대한 비판론이 지적하듯이) 지나치게 다양한 특징들을 반지성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특징들을 역사로부터 탈맥락화하고 추상화한, 즉 시대착오적으로 추출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의 반지성주의 개념은 단순히 우파 급진주의 비판이라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미 역사 연구로서 충분히 정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 개념에 내장시킨 적대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프스테터의 개념을 다시 한 번 호프스테터 자신으로부터 탈맥락화하거나 추상화하는 방식의 작업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장에서는 과연 호프스테터의 반지성주의 개념이 정말로 우파 급진주의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이는 좌파와 우파 모두의 반지성주의 비판이 과연 호프스테터의 논의로부터의 이론적·학술적 진전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4) 호프스테터는 미국의 종교사에서의 근본주의의 흐름을 “근대성에 맞선 반란”, 특히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맞선 것으로 보면서 그 역사적 부침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근본주의자들은 결국 영향력과 체통을 상당 부분 상실했음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종교 스타일이 등장한다. 그것은 성서 비평, 진화론, 사회적 복음, 갖가지 합리적 비판 등 모든 근대적 가치관에 역행하려는 욕구에서 형성되었다. 마침내 사회적 반동과 종교적 반동이 손을 잡음으로써 ‘100퍼센트 심적 자세’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Hofstadter 2017, 176).

Ⅲ. 지성주의 정치: 냉전 자유주의와 지식인의 직업·정치적 소명

1. 냉전적, 혹은 ‘수정주의적’ 자유주의와 지성주의

매카시즘을 비롯한 전후 미국 우파의 극단주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포퓰리즘과 반지성주의 개념을 동원한 호프스태터 자신의 정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반지성주의』에서의 다음의 서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정치적 지성이 우익적 심성에 대해 그토록 회의적이고 이해력도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우익적 세계관을 특징짓는 본질적인 신학상의 관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성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단순한 책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일종의 시민 세력으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일상생활에 대처하고 전략을 세울 독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은 투쟁을 중요하고도 영속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간 사회를 지속적인 타협 과정에서 비롯되는 균형의 산물로 이해한다. 또한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며, 하나의 세력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 즉 오랫동안 유지해온 균형 상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정치적 지성은 미묘한 변화나 세부를 중시하며, 모든 것을 정도의 차이로 본다. 그들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상대주의적이고 회의적이지만, 동시에 신중하고 인간적이기도 하다. (Hofstadter 2017, 193-194)

이어서 그는 정치적 지성을 근본주의자의 정신과 다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묘사한다.

본질적으로 마니교적 사상을 지닌 그들[근본주의자들]은 세계를 절대선과 절대악이 충돌하는 장으로 본다. 따라서 타협을 수치로 여기고(누가 사탄과 타협을 하겠는가?), 모호한 것을 절대 참지 못한다. 또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어떤 중요성도 발견하지 못한다. 예컨대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도 그들 눈에는 무신론임이 명백한 공산주의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뛰어난 정치적 지성이라면 먼저 정치의 현실을 생각하고, 적대하는 세력 간의 균형에 기초해서 처음에 정한 목표를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세속화된 근본주의자의 정신은 우선 무엇이 절대적인 정의인지를 결정해버린다. 그들의 눈에 정치의 세계는 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투쟁의 장인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냉전을 현실 세계의 정치 문제—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두 권력 체제 간의 투쟁—가 아니라 신념의 충돌로만 생각한다. 또한 세력 균형상의 현실—이를테면 소련의 핵 보유—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와의 정신적 싸움에 관심을 둔다. 특히 자국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 관심이 있는 근본주의자들로는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존재 여부보다는 오히려 정신의 싸움에서 그들이 적의 원형을 상징한다는 점을 의식한다. 근본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의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 그만큼 현실성 있는 존재일 리 없는 것이다. (Hofstadter 2017, 194-195)

이 구절을 그 명시적인 내용으로만 읽으면 이는 명백한 우파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대의 맥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매카시즘의 무분별한 공격과 억압의 구실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스탈린주의 비판이 대두되기 이전의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주의적 개혁주의의 시대의 특징이며, 이는 공산당 가입 경력

이 있는 호프스태터 본인의 이념적 과거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비극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호프스태터가 포퓰리즘 연구를 통해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단절하고자 했던 스탈린주의와 냉전 이전의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자유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미국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내부의 일종의 ‘수정주의적 경향’ 혹은 전환과 함께 자유주의 이념에 통합된 된 보수주의 철학이다. 미국 자유주의 역사에서의 이러한 냉전적이고 중도주의적 수정주의를 대표하는 저작으로는 호프스태터에게도 영향을 준 트릴링(Lionel Trilling)의 『자유주의적 상상』을 꼽을 수 있다(Trilling 1950). 호프스태터를 비롯하여 냉전 중도주의자로 변모한 자유주의자들은 뉴딜 자유주의에서와 같은 사회주의 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만, 사회주의의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주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원래의 선의와 달리 스탈린주의와 전체주의로의 귀결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전 시대에 자신들이 잘못 믿었던 이상주의와 급진주의가 뉴딜과 냉전 자유주의의 현실주의에 맞서기 위한 우파의 근본주의로 변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호프스태터가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우파 근본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주의적인 현실주의(혹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세계관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주의적이고 비극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반지성주의자들과의 비대칭적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반지성주의 비판의 목표가 반지성주의의 근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는 반지성주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고삐 풀린 열정은 우리 시대의 다른 망상들처럼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ofstadter 2017, 47)

그는 자신이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기소”도 완전한 “사면”도 하려는 것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다수 독자들에게는 이 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어떤 것이라는 사실에 한탄을 하기도 하였다(Singal 1984, 992 n 32).

이와 같은 보수적인 철학과 중도주의적 정파성의 공존은 호프스태터의 1960년대 이후의 지적·정치적 궤적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브릭(Howard Brick)에 따르면 호프스태터는 한편으로는 1960년대의 진보 정치적 의제에 공감하면서, 흑인 민권 운동의 현장(1963년의 워싱턴 행진과 1965년의 셀마 행진)에도 동참하였고, 베트남 전쟁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정치철학을 받아들였으며, 1968년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각에서 비판했는데, 그들의 운동과 행동이 “어리석고, 도덕주의적이며, 무자비하고, 파괴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Brick 2013, 103). 이는 전후 서구의 반-전체주의론자들(예컨대 아도르노)의 68혁명 및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인의 직업·정치적 소명

호프스태터의 반지성주의 비판과 지성주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식인을 직업적 전문가이자 준-정치가로서의 소명을 갖는다고 믿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우선 지식인의 영역과 정치가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는 “지식인들에 의해 이 세계가 통치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봤다(Hofstadter 1953, 295).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정치적

지성'에 관한 논의에서처럼 그는 지식인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미국사에서 지식인과 정치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는 건국기와 뉴딜 시대에 존재했다. 다만 건국기와 뉴딜 시대를 가르는 것은 바로 전문가이자 직업군으로서의 지식의 등장이며, 특히 이를 추동한 것은 근대사회의 특징인 분업화와 전문화이다. 건국기의 정치지성은 분업화와 전문화, 즉 합리화 이전 시대의 일이기에 때문에 이에 대한 향수는 현재의 지성주의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반지성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마도 20세기 지식인들의 변화된 상황을 가장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1890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식인들을 하나의 계급으로서 말할 수 있게 된 점일 것이다. 지식인 사회가 유한계급에서 떨어져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지식인과 사회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19세기 초에는 지성을 갖춘 사람은 많았지만 직업적 지식인은 소수였다. (...)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다음과 같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뛰어난 대학 제도와 고도의 연구에 적합한 대형 도서관, 신선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작가들에게 충분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유력 잡지,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아래 자국 작가들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품위에 집착하는 각종 금제로부터 자유로운 튼튼하고 진취적인 출판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잘 조직된 전문적인 학회, 다수의 학술 잡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확대된 정부 조직, 그리고 과학과 학문화 문학을 지탱할 든든한 재정 기반 등이다. (Hofstadter 2017, 557)

이와 같은 사회의 근대화는 지식인 사회 혹은 공동체의 제도적·물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프스테터는 지식인이 마치 베버의 직업정치가처럼 순수 지성(intellect)이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지적능력(intelligence)이라는 토대 위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성 내부에서의 진리에 대한 헌신 혹은 확신에 해당하는 '경건함',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지적 탐구에 필수적인 '장난기'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대의 미국의 지식인 사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탈정치화적) 소외, 그리고 정치권력에 대한 (과잉정치적) 순응이라는 두 가지 극단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보면서, 지식인 사회가 이러한 내적 분열을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지도력과 책임을 회복하는 것을 지성주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호프스테터의 진단과 처방은 모두 당연하게도 현대의 관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지식인의 직업적·정치적 소명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그의 반지성주의 비판이 최소한 반-반지성주의에만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IV. 결론

결론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오늘날의 반-반지성주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는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포퓰리즘 대 엘리트주의'라는 단순한 대립관계의 틀을 극복하고 반지성주의 개념과 담론의 역사에 대해 보다 민감하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질문이자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반지성주의 현상은 최소한 호프스테터의 사례처럼 (비록 역사학 연구로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사 연구의 방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역사학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맥락에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예컨대 한국의 반지성주의 현상 존재 여부와 그 특징은 보다 정교한 역사 연구의 방

식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반지성주의 담론의 맥락의 차이가 비교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반지성주의의 대립물과 대안이 곧 다원주의라면 이러한 비교는 필수적일 수 있다. 다원주의의 원형 중 하나는 군주, 귀족원, 평민원, 국교회의 권위와 기관의 공존을 주장하는 영국 초기 보수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반지성주의 비판과 능력주의 비판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호프스테터와 함께 매카시즘에 대한 냉전 중도주의 입장에서의 비판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벨이 능력주의의 옹호자였다는 사실(Bell 1973)을 염두에 둘 때, (호프스테터와 벨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능력주의 비판과 반지성주의 비판은 과연 지적 평등주의라는 쟁점에 관해서 화해 내지는 타협할 수 있는가? (오히려 반지성주의 비판이 모종의 능력주의 옹호를 수반한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일관된 추론이 아닐까?) 만일 능력주의 비판과 반지성주의 비판의 양립이 가능하다면 그 타협 지점은 무엇이 될까?

반지성주의 개념의 탈맥락화의 시도는 냉전 이데올로기와 근대화 이론이라는 맥락으로부터의 탈맥락화 또한 포함하는 것인가? 호프스테터가 포퓰리즘에 대해서 묘사하고 규정할 때, 마치 1950년대의 근대화 이론가가 탈식민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Gilman 2003, 64)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현재의 반지성주의 비판은 냉전, 근대화, 유럽중심주의 등의 맥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포퓰리즘 개념과 마찬가지로 반지성주의 개념이 최소한 그 기원에 있어서 이러한 맥락과 결부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지성주의 비판은 과연 무엇을 옹호하는가? 혹은 무엇을 보호하고 보존하려 하는가? 반-반지성주의가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그 ‘보수’의 대상은 무엇인가? 만일 반-반지성주의와 보수주의가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반지성주의 비판은 어떤 이념적 특징과 정파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가? 정파적 의미보다는 철학적 의미의 보수주의(예컨대 ‘비극적 정치관’)도 반드시 지성주의의 입장에서는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인가? 만일 그렇다면 진보주의, 혹은 심지어 급진주의는 반지성주의 비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반지성주의 비판은 ‘비판’과 ‘계몽’ 이외에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반지성주의 비판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지식인의 비타협성과 순수성을 강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협과 다원주의를 추구하는가? 만일 후자를 지향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지향이 단순히 명목상의 것이 아니라면 과연 기존의 반지성주의 개념은 과연 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비대칭적 대립개념으로서의 반지성주의 개념이 과연 타협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지성주의 정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반지성주의’라는 명칭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반지성주의’ 반대라는 구호 아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한적 타협주의나 가치 다원주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반-반지성주의 연합에는 누가 배제되고 누가 포함되어야 하면 이를 가르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 강준만. 2019.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정치정보연구』 제22권 1호, 27-62.
- 박진빈. 2017. “반지성주의와 지식인의 한계.” 『역사비평』 제121호, 427-439.
- 윤태진. 2017. “‘시민의 시대’와 반지성주의.” 『문화과학』 제91호, 236-237.
- 천정환. 2017. “촛불항쟁 이후의 시민정치와 공론장의 변화: ‘문빠’ 대 ‘한경오’, 팬덤정치와 반지성주의.” 『역사비평』 제120호, 386-406.
- 한상원. 2018. “아도르노와 반지성주의에 관한 성찰: 민주주의와 지성의 상관성 물음.” 『철학』 제135호, 23-46.
- Adorno, Theodor, et al.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ell, Daniel, ed. 1955a. *The New American Right*. New York: Criterion Books.
- Bell, Daniel. 1955b. "Interpretation of American Politics." In Daniel Bell, ed. *The New American Right*. New York: Criterion Books, pp. 3-32.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Brick, Howard. 2013. "The End of Ideology Thesis." In Michael Freeden, Lyman Tower Sargent, Marc Stea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de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0-112.
- Brown, David S. 2006 *Richard Hofstadter: An Intellectual Bi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novan, Margaret. 1981. *Populism*. New York: Harcourt.
- Gilman, Nils. 2003. *Mandarins of the Future: Modernization Theory in Cold War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oodwyn, Lawrence. 1976. *Democratic Promise: The Populist Moment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cks, John. 1932. *The Populist Revolt: A History of the Farmers' Alliance and the People's Par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ofstadter, Richard. 1953. "Democracy and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 *Michigan Alumnus Quarterly Review* 59: 21, 281-295.
- Hofstadter, Richard. 1955a. *The Age of Reform: From Bryan to FDR*. New York: Vintage Books.
- Hofstadter, Richard. 1955b. "The Pseudo-Conservative Revolt." In Daniel Bell, ed. *The New American Right*. New York: Criterion Books, pp. 33-55.
- Hofstadter, Richard. 1963.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New York: Knopf.
- Hofstadter, Richard. 1965.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stadter, Richard. 1969. "North America." In Ghita Ionescu & Ernest Gellner, eds.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etchworth: Garden City Press, pp. 9-27.
- Hofstadter, Richard, 저·유강은 역. 2017. 『미국의 반지성주의』. 파주: 교유서가.

- Hofstadter, Richard, & C. DeWitt Hardy. 1952. *The Development and Scope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fstadter, Richard, & Walter P. Metzger. 1955. *The Development of Academic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äger, Anton. 2017. "The Semantic Drift: Images of Populism in Post-war American Historiography and Their Relevance for (European) Political Science." *Constellations* 24, pp. 310–323.
- Lipset, Seymour Martin. 1955. "The Sources of the "Radical Right"." *The New American Right*, ed. Daniel Bell, pp. 166–233.
- Moffitt, Benjamin, and Simon Tormey. 2014. "Rethinking Populism: Politics, Mediatisation and Political Style." *Political Studies* 62, pp. 381–397.
- Nugent, Walter. 1963. *The Tolerant Populists: Kansas Populism and Nativ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lack, Norman. 1960. "Hofstadter on Populism: A Critique of "The Age of Reform"." *Journal of Southern History* 26:4 (November), pp. 478–500.
- Pollack, Norman. 1962a. *The Populist Response to Industrial America: Midwestern Populist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llack, Norman. 1962b. "The Myth of Populist Anti-Semitism." *American Historical Review* 68:1. 76–80.
- Pollack, Norman. 1965. "Fear of Man: Populism, Authoritarianism, and the Historian." *Agricultural History* 39:2, 59–67.
- Postel, Charles. 2007. *The Populist Vi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ils, Edward. 1954. "Authoritarianism: "Right" and "Left"." In Richard Christie & Marie Jahoda, eds. *Studi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Glencoe: Free Press, 24–49.
- Shils, Edward. 1955. "Populism and the Rule of Law." *Conference on Jurisprudence and Politics*, ed. Scott Buchanan et 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pp. 91–107.
- Shils, Edward. 1956. *The Torment of Secrecy: The Background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Security Policies*. Glencoe: Free Press.
- Shils, Edward. 1958a. "Review: Ideology and Civility: On the Politics of the Intellectual." *The Sewanee Review* 66:3 (Summer), pp. 450–480.
- Shils, Edward. 1958b. "The Intellectuals and the Powers: Some Perspective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1 (October), pp. 5–22.
- Singal, Daniel. 1984. "Beyond Consensus: Richard Hofstadter and American Historiography." *American Historical Review* 89:4 (October), pp. 976–1004.
- Stravarakakis, Yannis. 2017. "How Did 'Populism' Become a Pejorative Concept? And Why Is This Important Today? A Genealogy of Double Hermeneutics." *Populismus Working Papers* No. 6. pp. 1–23.
- Trilling, Lionel. 1950. *The Liberal Imagination: Essays o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Viking Press.

- Woodward, C. Vann. 1938. *Tom Watson: Agrarian Rebe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ward, C. Vann. 1951. *Origins of the New South*.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Woodward, C. Vann. 1959. "The Populist Heritage and the Intellectual." *The American Scholar* 29:1 (Winter), pp. 55-72.
- Woodward, C. Vann. 2013. *The Letters of C. Vann Woodward*, ed. Michael O'Bri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